



[기상청] 기상특보

[ooo] 한파경보 발효 및 금일 24일까지 강설예보중. 외출자제 노약자 건강관리주의 차량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기상특보

[ooo] 1,23 18:00 서울지역 한파경보, 동파방지, 화재예방 등 피해없게 주의바랍니다.

오후 6:50

24시간 ‘기상문자 폭탄’ 그 속에 숨은 노력을 봅니다

고은 지 연합뉴스 기자

‘땡땡’, 지난 6일 문자 알림 소리에 설핏 든 잠에서 깨 휴대전화를 켜보니 눈에 들어온 건 ‘안 읽은 메시지가 4개 있습니다’. 깜짝 놀라 문자를 열었더니 전날 밤 11시 57분부터 6일 오전 4시 4분까지 4개의 [기상청] 기상특보* 문자가 좌르륵 펼쳐졌습니다. 이날은 서울에 3년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6일 하루 동안 제가 받은 기상청 특보 알림 문자를 세어 보니 모두 19건에 달하더군요.

‘꼭 필요한 불청객’ 기상특보 문자

사실 이날처럼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기상청 알림은 종종 제 잠을 방해하는 ‘불청객’이었습니다. 지진, 한파, 대설, 강풍, 풍랑 등등 전국의 각종 기상 소식이 때를 가리지 않고 시시각각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상특보 문자는 저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요 기상정보를 놓치지 않고 발 빠르게 기사를 쓰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지만 기상 기자인 저에게, 또 날씨에 민감한 일을 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기상특보 문자를 보다 보면 그 속에 숨은 24시간 기상청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기사화할 만한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포인트를 꼭 집어서 알려주는 대변인실, 국내 어딘가에 지진이 발생해서 전화하면 미처 전화 연결음이 들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던 통보관님, 그리고 그 외에 직접 뱃지는 못했지만 24시간 기상 상황을 주시하며 날씨를 알려주는 많은 기상청 직원분들까지……. 짧은 문자에는 다 담지 못할 ‘피, 땀, 눈물’이 그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날씨 예보는 ‘잘해야 본전’

지난해 여름 역대 최장 장마에, 이번 겨울 기록적 한파까지 이상기후가 빈발하면서 제가 바빴던 것 훨씬 이상으로 기상청은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겁니다.

제가 기상청에 출입한 지 이제 8개월가량 됐지만, 날씨 예보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지난해 장마철 예보의 경우 뼈아픈 질타가 이어졌고, 정확한 예보를 해도 좀처럼 칭찬을 받기가 어려우니 말입니다.

지난해 여름과 가을 빈발했던 태풍의 진로 예측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미국보다 정확했고, 이와 관련한 기사를 썼는데 ‘선플’보다는 ‘악플’이 많아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분 저보다는 기상청이 더 많이 느끼실 테지요. 그래도 국민에게, 언론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와중에도 ‘미니 브리핑’, ‘기상 강좌’를 통해 예보를 강화하려는 기상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렇게 조금씩, 더 자주 다가가다 보면 그만큼 신뢰도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날씨가 또...’ 그래도 봄은 온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기상청] 2021.01.12. 15:30 발표 (1) 대설주의보 발효’ 등 기상특보 문자 알림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자꾸 울리는 알림에 창밖을 보니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데요. 추위가 모처럼 풀려서 이제 한숨 돌리나 했는데 ‘역시나’ 날씨는 설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안에서 바라보는 눈 내리는 풍경은 참으로 예쁘고 포근해 보이는 데 곧 써야 할 날씨 기사를 생각하면 마음은 복잡하긴 합니다.

제가 이러니 기상청의 심정은 오죽할까요.

그래도 이 추위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고 봄이 오겠죠. 따뜻한 봄에는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도 좋아져서 기상청으로 출근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